



가슴인 비전을  
행동인 품격을  
새삼인 사랑을

(063)844-3813(교무실)  
(063)859-9186(진학실)  
(063)858-3908(Fax)

제 2017-2월호

2017년 2월 24일(금)

## 2018학년도 대입 전형의 변화 읽기

### C·O·N·T·E·N·T·S

#### 입시 정보 지면 안내

- 2018학년도 대입 전형의 변화 읽기 / 1-2면
- 2018학년도 대입, 똑똑하게 준비하기 / 2-3면
-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대비 방안 / 3-6면
- 예비 고1, 대입준비 어떻게 하라 / 7-8면
- 고교 신입생 준비책서 / 8-9면
- 2018·2019 입시입장 / 9면
- 고3 학부모 시가별 활용(예시) / 9면

※ 본 자료는 언론 및 기타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제작한 것으로 반드시 출처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홈페이지 입시정보란에 E-mail 및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자료집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정리하면

- ☞ 전반적으로 수시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
- ☞ 정시로 대학 가는 시대가 끝남. 특히 수시전형이 고려대학교 10%, 서강대학교 8%가 증가함으로써 상위권 대학교 정시전형은 패자 부활전 내지 재수생들 몫
- ☞ 수시에서 학종의 급격한 증가와 고대 논술폐지로 인한 논술전형의 영향력 감소
- ☞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는 이유는 매우 다양함.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교내 교육활동을 통해 미래 인재로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 ☞ 수능 영어절대평가와 맞물려 수시 수능최저 학력기준이 완화되는 추세
- ☞ 갈수록 수능 영향력 약화
- ☞ 상위권 대학교는 원래부터 영어 원점수 90점 이하 지원이 불가능했음.  
1~2등급 사이 점수를 많이 주든 말든 90점 이하는 원래 서울 상위권 대학 못 들어갔음. 그래서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든 의미 없음
- ☞ 자꾸 상위권 대학 1~2등급간 점수 부여로 영어의 유불리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영어 원점수 90점 이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원래 못 갔음

- ☞ 현 고2 학생들은 수시전형 준비에 집중해야 함(특히 상위권은 무조건)
- ☞ 특히 상위권은 수시전형 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준비되지 않으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음
- ☞ 부정하고 싶어도 학생부가 대학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함
- ☞ 상위권 학생(안정적으로 영어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이 나오는 학생)들이 영어 수능 준비만 계속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임
- ☞ 상위권은 영어와 관련하여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적힐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학생부에 영어와 관련된 활동들이 적혀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함
- ☞ 내신 3~4등급 이하의 학생 중 지방국공립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영어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함
- ☞ 지방 사립대학은 여전히 수시에서 80~90%를 선발할 것임. 거의 내신전형이므로 그냥 내신준비 하면 됨
- ☞ 수도권 대학이나 중위권 대학은 정시 비율이 아직 적당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신경을 써야 함.

### 2018학년도 대입, 똑똑하게 준비하기

2018학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변화가 많은 편으로 예비 고3 학생들은 변화된 대입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대학별 전형방법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작년 4월 발표된 [2018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의 특징은 ①수시모집인원 증가(69.9%에서 73.7%로) ②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 증가(20.3%에서 23.6%로) ③영어절대평가 실시 등이 큰 이슈이고, 논술인원 감소도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진학사는 학생의 장점을 살리는 전략, 목표 대학에 집중하는 전략 등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한 대비책을 소개한다.

#### 1. 학생의 장점을 살리는 전략 - 전형별 대비

학생 개개인이 잘하는 것은 각기 다르다. 어떤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말 주변이 좋아 면접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듯 학생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전형요소에 집중해, 해당 요소의 반영 비율이 큰 대학이나 학과를 노리는 것도 전략이다. 수능, 학생부, 면접, 논술 4개 요소별로 작년과 비교해 올해 일부 대학들의 변화를 살펴보자.

2018학년도에 수능 반영 비중이 늘어난 대학은 한국외대인데, 정시에서 2017학년도 수능90+교과10%에서 수능100%

로 변경되었다. 그에 비해 한양대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기존과 같이 전 전형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학생부 관리가 잘 된 학생이라면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주목할 만하다. 경희대와 성균관대 2018학년도 수시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고려대는 수시 선발인원이 가장 많았던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중심전형으로 수험생을 선발한다.

면접이 중요해진 대학 중 하나는 연세대와 고려대인데, 연세대는 교과형 종합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면접)이 신설되었고, 고려대의 고교추천I전형은 2단계를 면접으로 선발한다. 면접 반영 비중이 줄어든 대학으로는 이화여대와 한양대가 있는데, 이화여대는 수시의 경우 고교추천전형에서 1단계 면접이 폐지되어 1단계는 교과100%로 선발한다. 한양대는 교과전형의 면접이 폐지되어 교과100%로 수험생을 선발한다.

논술 반영 비중이 늘어난 대학은 서강대인데, 서강대 논술전형의 경우 논술비율이 전년도 60%에서 올해는 80%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대학의 논술반영비율 증가와 달리 선발인원의 감소도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대학으로 고려대의 경우 논술전형이 폐지되었고,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은 논술전형의 선발인원이 감소했다.

#### 2. 목표 대학에 집중하는 전략 - 희망대학별 대비

목표 대학이 뚜렷한 학생이라면, 해당 대학의 전형별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려대는 전형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각 대학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험생들을 선발하려는지 일부 대학의 2018학년도 전형방법을 살펴보자.

##### \* 경희대

경희대 2018학년도는 전년도와 수시와 정시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수시 72.5%와 정시 27.5%를 선발한다. 수시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논술전형의 선발 비율이 감소했다. 수시의 경우 학교생활총실자전형과 고교연계전형을 통합하여 학생부종합전형(고교연계)으로 운영되고, 학생부교과의 비중을 60%에서 50%로 축소하여 선발한다. 수능최저가 적용되는 논술우수자전형의 경우 수능최저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문은 2개 합4, 자연은 2개 합5로 영어절대평가체제에서는 실제로 수능최저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고려대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고려대의 경우 전형방법의 변화가 가장 큰 대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시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년도 25.9%를 선발하던 정시는 2018학년도의 경우 전체의 16%만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 선발인원이 가장 많았던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중심전형으로 수험생을 선발하려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인 고교추천I전형의 경우 1단계를 교과로, 2단계는 면접으로 수험생을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인 고교추천II전형은 1단계를 서류로, 2단계는 서류50%와 면접50%로 선발한다. 고교추천전형 I, II의 경우 고3재적생의 4%이내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

형이다. 일반전형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단계는 서류로, 2단계는 서류70%와 면접30%로 수험생을 선발하게 된다.

#### \* 서강대

2018학년도 서강대는 타 대학과 유사하게 전년도 대비 약 8% 정도 증가한 80.1%를 수시에서 선발한다. 크게 변경된 전형은 없으나 특기자전형이 폐지되고, 논술전형의 경우 전년도 논술비율이 60%에서 80%로 증가하며, 논술전형을 비롯한 수능최저가 적용되는 전형의 경우 4개 영역 중 3개 2등급으로 강화될 계획이다. 정시의 경우 국어 34.4%, 수학46.9%, 탐구 18.8%를 반영하여 수험생을 선발한다.

#### \* 서울대

서울대의 경우 전형상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2017학년도에 비해 정시 모집인원이 더 감소했다. 2016학년도 766명(24.4%)에서 전년도 729명(23.3%)로, 2018학년도에는 68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전체의 21.5%를 정시에서 선발한다. 수능영역별 반영비율은 영어절대평가 하에서 국어(33.3%)+수학(40%)+탐구(26.7%)를 반영하고, 영어는 2등급부터 0.5점씩 감점한다.

#### \* 서울시립대

2017학년도에 비해 수시모집 비중을 증원한 서울시립대는 학생부위주전형의 인원은 증가하고 논술전형의 인원은 감소했다. 인원의 증감을 제외하고 정원 내 전형의 선발방법의 변화는 크지 않다. 정시모집의 반영비율도 인문은 국수영탐기준 28.6:28.6:28.6:14.2를 자연은 20:30:20:30을 반영하고 영어는 1등급은 만점을 부여하고, 2등급부터 인문은 7점, 자연은 5점씩 감점한다.

#### \* 성균관대

성균관대 2018학년도의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전형상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과학인재전형이 폐지되고, 소프트웨어과학인재전형이 신설된다. 논술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연세대와 유사하게 영어 2등급과 한국사 4등급을 필수로 하고 남은 영역 중 2개 합4등급으로 변경하였다(일부 제외). 단 의예과의 경우 영어 1등급을 요구하는 점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정시의 경우 인문은 국어40%+수학40%+탐구20%를 반영하고, 자연은 국어25%+수학40%+과탐35%를 반영한다.

#### \* 연세대

연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이 폐지되고,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었다. 기존 학생부종합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험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과 함께 교과형 종합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면접)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심층면접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

#### \* 이화여대

이화여대의 2018학년도 대입은 먼저, 수시의 경우 고교추천전형에서 1단계 면접이 폐지되어 1단계는 교과100%로 선발하게 된다. 미래인재전형과 논술전형의 경우 수능최저는 전년도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영어절대평가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수능최저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시의 경우 인문, 자연 공히 국수영탐 25:25:25:25로 반영하여, 인문의 경우 영어의 비중이 감소하고 탐구비중이

증가했다. 하지만 타 대학과 다르게 영어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 중앙대

중앙대의 경우 전년도와 유사하게 수험생을 선발한다. 수시는 전체의 69%를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탐구형인재)의 경우 서류100%에서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70%+면접30%로 전형방법이 변경되었다. 수능최저가 적용되는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의 경우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인문/ 자연 모두 3개 합5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정시의 경우 인문은 국어40%+수학40%+탐구20%를, 자연은 국어25%+수학40%+과탐35%를 반영하고 영어는 1등급 20점 만점으로 등급별 감산한 점수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게 된다.

#### \* 한국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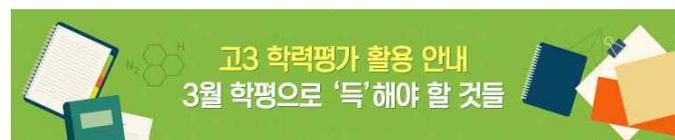
한국외대의 경우 수시모집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138명 증가하고, 학생부위주전형의 인원이 증가했다. 전형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논술전형에서의 수능최저의 경우 글로벌캠퍼스 인문계열은 영어1등급 또는 4개 영역 중 2개합6으로 변경되었다. 정시의 경우 2017학년도 수능90+교과10%에서 수능100%로 변경되었고, 수능영역별 반영비율의 경우 인문은 전년도 국수영탐 기준 30:25:30:15에서 30:30:20:20으로 자연계열은 25:30:25:20에서 20:30:20:30으로 변경되었다.

#### \* 한양대

2018학년도 한양대 전형계획을 살펴보면 교과전형의 면접이 폐지되어 교과100%로 수험생을 선발한다. 논술전형의 변화는 논술의 비중이 60%에서 70%로 10% 증가하고 학생부종합평가30%를 반영한다. 수능 최저는 기존과 같이 전전형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정시의 경우 영어를 10%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국어30%+수학30%+영어10%+사탐30%, 자연계열은 국어20%+수학35%+영어10%+과탐35%를 반영하여 수험생을 선발하게 된다.

진학사 이재진 평가실장은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은 자신의 장점을 살리거나, 목표 대학에 맞춰 집중하는 등 2가지 타입의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첫째는 수능, 학생부, 논술, 면접 등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요소의 반영 비율이 큰 대학이나 학과를 고려해 준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희망 대학이 뚜렷한 경우, 해당 대학의 선발 기준을 잘 살펴 준비하는 방법이다. 둘 중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해 1년 동안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일부 대학의 수능최저 중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기에 분석상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3월 학평 점수가 곧 수능 점수라는 말이 있다. 시험을 잘 봤다면 3월 학력평가 점수가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3월 학평 점수가 그대로 수능 성적이 될까?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거나,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3월 학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 3월 학평에서 '득'해야 할 것들

#### 1. 수능, 실전 연습의 기회로 삼아라!

3월 학력평가 시험 분위기는 고1, 고2 때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오히려 자거나 시험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다. 친구들이 하나 둘, 포기한다고 해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마음을 다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실전 분위기를 익히도록 하자.

모의평가를 포함해 앞으로의 학력평가는 총 6번. 이 6번의 시험을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해서 대입 전략을 세우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해 수능의 긴장감을 줄이도록 하자.

#### 2. 시간 분배 능력을 키워라!

3월 학력평가로 시간 분배 훈련을 시작 한다고 생각하자. 실제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시간 분배를 정확히 하고 지키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금은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몇 분이 걸리는 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차차 시간을 줄여서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공부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하고 임한다.

#### 3. 취약한 부분을 찾고, 극복하라!

시험 문제를 풀다보면 본인에게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맞은 것 같았는데 틀린 문제들 말고, 맞았지만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들, 잘 기억나지 않았던 개념들을 문제를 풀면서 시험지에 체크해 두었다가, 시험이 끝난 후 노트나 문제집 등 자신이 보기에 편한 곳에 적어 두고 완벽히 숙지할 때까지 체크하자.

#### 4.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기준점으로 삼자.

3월 학력평가는 수험 시간 동안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기에 좋다. 지금까지의 공부에서, 특히 개념에 대한 숙지 등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메꾸면서 시기별로 해야 할 공부들을 해 나가도록 한다.

#### 5. 점수에 현혹되지 마라!

학평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성적이 저조하다 해도 크게 좌절하지 말자. 또 성적이 좋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자. 앞으로 남은 250일 동안 충분히 뒤바뀔 수 있다.

지금 흔들리면 남은 기간 대입 준비에 큰 차질이 생긴다. 컨디션 관리를 통해 수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대 점수에 현혹돼 흔들리지 마라.

3월 학평을 치르기 전에 check! 1, 2, 3

## 4 실력을 기르고 품성을 도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작교

### 1. 시험 과목과 범위 확인하기

####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범위>

국어	공통	1,2학년 전범위
수학	가형	[미적분 II] 전범위 [확률과 통계] 1. 순열과 조합 [기하와 벡터] 출제 안함
	나형	[수학 II] 전범위 [미적분 I] 1. 수열의 극한 [확률과 통계] 출제 안함
영어	공통	1,2학년 전범위
한국사	공통	전범위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전범위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과학탐구	물리 I	전범위
	물리 II	미실시
	화학 I	전범위
	화학 II	미실시
	생명과학 I	전범위
	생명과학 II	미실시
	지구과학 I	전범위
	지구과학 II	미실시
직업탐구	전과목	미실시
제2외국어 및 한문	전과목	미실시

#### 2. EBSi 학평 사전 준비 서비스로 준비하자.

시험이 3주 남은 지금, '3월 학평을 잘 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잘 알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보야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3월 학평을 잘 보자가 아니라, 수능이다! 수능을 치르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의 대입전략을 세우고, 수능 예행연습을 위해 치르는 것이 3월 학평이다. 그 목적을 기억하고 나에게 맞는 문제를 풀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3. 기출로 대비하자!

EBSi에만 있는 기출 문제 서비스를 활용한다. 나에게 부족한 영역, 취약한 단원의 유형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출 문제로 풀어보고 싶다면, 시험지를 직접 만들어서 풀어볼 수 있다. EBSi 문제 은행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취약점 극복에 유리하다.



학력평가의 중요성을 모르는 고1,2들에게!

고1, 고2에게도 학력평가가 중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딱 잘라 Yes! 라고 말하고 싶다.

### 학력평가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

학력평가를 통해 전국단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으로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이 든다. 따라서 학력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정하는 기준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 학력평가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

학력평가는 시, 도 교육청의 유능한 출제자들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과 유형을 익히고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력평가를 치르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학력평가가 양질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학력평가에 나온 개념이나 유형을 응용하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학력평가를 최선을 다해서 치르고, 그 결과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어영역**      **학력평가는 대입의 시작점!**  
 - 고1, 고2를 위한 학력평가 대비&활용법 -

**고1 국어 학력평가,**  
국어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라!

3월 학력평가 출제 범위 중학교 전 과정  
 6월 학력평가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반 출제  
 ↓  
 중학교 개념부터 재정리 필요!

개념을 혼자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EBSi <고등예비과정>이나 <징검다리> 강좌가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또한 고1 학평 국어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에 적응해야 한다.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발문을 통해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이해하고, 출제자가 제시한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자.

### 고2 국어 학력평가, 어려워지는 독서 영역을 잡아라!

독서 영역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출제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2 수험생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이니만큼 독서 영역에서 출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독서영역 출제 방식

☞ 출제자들은 독서 영역을 출제할 때 ‘개념’, ‘특

징’, ‘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개념’, ‘원리·방법’, ‘특징’, ‘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인용하거나, 변형하거나, 바꿔치기를 통해 선택지를 구성한다.

① 인용하기  
‘인용하기’는 지문의 정보를 선택지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변형하기  
‘변형하기’는 어휘, 어구 등에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한다. 지문에서 정보의 ‘특징’에 관한 선택지를 만들 때 지문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말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다른 어휘나 어구를 사용하는데, 그 경우가 ‘변형하기’에 해당한다.

③ 바꿔치기 ‘바꿔치기’는 짝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문에 ‘장미는 붉고, 개나리는 노랗다.’라는 정보가 있을 때 선택지에서는 ‘장미는 노랗다.’와 같이 짝을 바꿔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제 원리에 유의하여 독서 영역에 대한 전략적인 공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수학영역      학력평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1. 시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라!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수능의 출제기관이 교육과정평가원인 것처럼, 학력평가의 출제기관은 각 시, 도 교육청이다. 3월 학력평가를 잘 치르고 나아가서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출제기관이 출제한 3월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EBSi 입시정보에는 각 출제기관이 출제한 학력평가 기출문제가 모두 탑재되어 있다.

#### 2. 기출을 제대로 활용하자!

① 분석  
기출문제를 통해 어떤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 어떤 유형이 자주 등장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념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EBSi의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한 번 공부하고 나면 기출문제를 그냥 푸는 것이 아닌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나면, 개념공부와 유형공부를 할 때, 개념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② 시간 배분  
수학의 경우 시간관리가 되지 않아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자. 이러한 연습을 통해 실전감

각을 기르고, 시험 시간 관리를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영어영역

#### 1. 시간 배분도 실력이다.

영어영역은 특히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고1 학생의 경우, 처음 보게 되는 모의고사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가 시간 배분을 잘못하여 후반부에 있는 장문 독해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시험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장문 독해는 글의 난이도는 비교적 쉬우면서 2~3개의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유리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끝까지 풀어야 한다. 시험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2. 정독+속독 두 마리 토끼 잡기

영어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정독을 하면 속도가 너무 떨어지고, 속독을 하자니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 3. 듣기는 ‘다 맞추겠다’ 는 생각으로!

영어영역 총 45문제 중 듣기가 17문제를 차지한다. 이는 약 38%에 이르는 상당한 비중이다 독해에 비해 쉬운 영역이지만 그만큼 다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듣기 연습을 한다. 약 이틀에 한 번씩은 듣기 문제를 풀며 문제 유형과 영어 듣기에 감을 기르도록 하자.

### 사회탐구영역

#### 고1 사회탐구 학력평가, 이렇게 준비하라!

##### 사회탐구라는 과목을 훑어보자!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학력평가라는 것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온 국영수에 비해 사회탐구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1학년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은 국영수에 많이 집중 돼 있고, 생활과 윤리, 일반사회, 한국지리의 모든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과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일단 사회탐구 과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 과목이 나중에 어떻게 2학년 학습과 연계가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 고2 사회탐구 학력평가, 이렇게 준비하라!

국영수를 공부하기에 하루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도 벅찬 상황에서, 도대체 사회탐구 학력평가 대비는 언제 해야 할까? 그에 대한 정답은 바로 수업시간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해주는 필기를 활용하여 그 과목에 대한 개념 노트를 완성하라. 단, 수업시간에 해주는 필기에 더해서 EBSi 강의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

어, 학교에서 생활과 윤리를 배운다면 수업 내용을 필기하고, 이와 더붙어서 생활과 윤리 김종익 쌤의 <뉴탐스런 생활과 윤리> 또는 <타임슬립 생활과 윤리> 강의를 듣고 이를 필기 내용에 첨부하면 좋다.

결국 고등학교 2학년 시기는 본격적으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내신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선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탐구과목에 대하여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 과학탐구영역

#### 학력평가를 기회로 수능의 감을 잡자!

내신 성적에 비해 학력평가 성적이 낮은 편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수능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탐 영역 내신 유형의 문제들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과 내용 암기와 계산 능력 등을 요구하는 반면, 수능 유형의 문제들은 개념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어 교과 개념은 물론이고 문제 응용력, 이해력,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평소 내신 공부처럼 벼락치기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했다면, 학력평가와 수능 과탐 영역에서 고득점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 번의 학력평가를 통해서 수능 유형의 문제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탐, 학력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1. 과목별 나만의 개념 노트로 개념을 사!사!사!

아무런 준비 없이 학력평가를 치르게 되면, “분명 배운 내용이었는데. 아....아....!!!! 왜 기억이 안 나지?” 라는 탄식이 새어나오게 된다. 하지만, 과탐 내신 공부를 할 때 과목별로 나만의 개념 노트를 미리 만들어두었다면, 탄식 대신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될 것이다. 내신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과목별 개념 노트를 만들어 놓고, 학력평가 전에 정리해 둔 노트를 보며 기억 저 편 속 개념들을 상기시켜보자. 분명 두 세 문제 정도는 거뜰히 더 맞을 수 있을 것이다.

##### 2.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자!

과탐 영역 고득점을 노리고 싶다면,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자. 한 번 출제되었던 문제는 모습을 조금만 바꿔서 또 다시 출제되기 때문에 3개년 정도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본다면,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이 쉽게 파악될 것이다. 문제 풀이를 통해 수능 유형의 문제를 익히고! 부족한 개념들은 채워서! 성적은 오르게 된다!



## “예비 고1, 대입 준비 이렇게 하라”



내달이면 예비 고1들이 고교 생활을 시작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전체 고 1학생 수가 7만여명 감소했다는 점과 지난해 전기모집 고교 지원이 감소하고 일반고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일반고의 내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고1이라면 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연간 계획표를 출력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일정에 따라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입시전문가와 함께 ‘예비 고1을 위한 고교 생활 일정’을 짚어봤다.

### ◇3월 : 임원, 동아리 선택 신중하라

3월 초·중순에는 임원 선출과 동아리 선택을 하게 된다. 임원이 되는 것은 교우와 선생님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임원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학급을 위한 봉사, 나눔, 희생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도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임원이 되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임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른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분명히 정해둬야 한다.

동아리에서는 관심 분야에 대한 자발적 활동을 하게 되므로 첫 선택이 중요하다. 입학 전에 진학하는 고교의 동아리 정보를 확인해 관심 있는 동아리를 2개 정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선호가 높은 방송·경제·수학·과학 탐구반 등은 경쟁이 치열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발 방식을 파악해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한다.

내달 9일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3월 학평’) 준비도 착실히 해야 한다. 3월 학평은 중학교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입학한 학생 간에 우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단, 경기도와 광주시는 시행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도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 ◇4월 : 중간고사에 사활을 걸어라

고1 1학기 중간고사는 입학 후 치러지는 첫 내신시험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좋은 기회다. 일부 학생들은 관심 있는 과목만 집중해 학습할 수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자연계열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이 수학, 과학 학습만 집중하고 국어, 사회를 소홀히 해 성적 편차가 큰 경우,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결코 유리할 수가 없다. 전공 관련 교과 외에도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 과목은 대부분 1학년 때만 배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고3 때 다시 학습해야 한다.

중간고사 일정은 입학 후 바로 확인하고, 3~4주 정도의 중간고사 대비 기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학년 초부터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면, 수업 직후 쉬는 시간 중 일부를 활용해 필기한 내용을 다시금 훑어 보는 방식을 습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5월~6월 : 경시대회·교내 활동 실적 쌓아라

5월과 6월 사이에는 많은 교내 활동들이 진행된다. 과목별 경시대회도 있고, 진로와 연관된 참여활동도 많다. 가능하다면 고1 때는 다양한 경시대회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다. 여러 분야를 접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했더라도 자기소개서에 경시대회를 준비한 과정을 기록하면서 자기 주도학습과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유적답사, 명사특강 등 다양한 진로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1학년 때는 어떤 진로가 내게 어울리는지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접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된다. 진로활동 일정에 맞춰 사전에 정보를 찾아본다면 더 효과적이다. 진로활동에 대한 예습은 20~30분이면 충분하며, 그 정보를 토대로 해당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질문거리도 나올 수 있다. 추후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진로활동 사항에 적극적인 학생으로 기록돼 도움이 된다.

아울러 6월 1일은 부산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6월 학평’)가 시행된다. 6월 학평은 서울시와 세종시에선 실시하지 않는다. 문제지는 시험 직후 부산시교육청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하지 않는 지역의 학생들이라도 풀어보는 것이 좋다.

### ◇7월 : 1학기 기말고사에 집중하라

학기말 고사 기간이다. 중간고사 범위까지 포함해 시험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보다 공부할 양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예체능과 생활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기말고사만 시행하는 학교가 대다수다. 따라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한다. 중간고사 때 성적이 저조했던 과목은 더욱 신경 써본다.

### ◇8월 : 여름방학, 2학기 예습과 부족했던 책을 읽자

여름방학에는 복습 위주보다는 2학기 과정의 예습 위주로 대비하고, 일부 부족한 과목들에 한해 배운 내용을 가능한 한 빠르게 복습해야 한다. 예습을 할 때에는 특정 과목에 한해 집중하기보다는 주요 교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을 고르게 학습하는 것이 내신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 교과서를 통한 이해와 기본참고서에 수록된 문제풀이 정도는 해 두면 좋다. 또한, 방학 기간인 만큼 일부 시간을 활용한 독서는 필수다.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못해도 3권 정도는 정독해본다.

### ◇9월 : 2학기 임원, 더 큰 의미 가진다

2학기 시작으로 다시금 임원선출이 있는 시기이다. 한 학기 생활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학급을 위해 잘할 수 있거나 도움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급회장인지, 미화부장인지 등 지위보다는 그 활동을 하며 얻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반드시 임원이 될 필요는 없지만,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

9월 6일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9월 학평')가 치러진다. 경기도와 세종시는 실시하지 않는다. 1학기 때 배운 과정 중심으로 출제되므로, 되도록 배운 과정을 복습해두는 것이 좋다.

### ◇10월 : 2학기 중간고사 기간

중간고사 기간이다. 한 학기 학습을 통해 과목별 담당 선생님들의 성향을 파악했을 것이기에, 그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 출제 방식이 수업 중심인지, 참고서 중심인지 등에 따라 시험 대비도 맞춰 해야 효과가 높다. 과목별 고른 향상을 전제하되, 특별히 선호하는 과목이 있다면 비중이 더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당 과목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경우 종합전형 평가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 ◇11월 : 학교 행사에 관심 갖자

11월에는 동아리 발표 대회 등 학교 행사가 많이 진행된다. 활동 내용은 추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다. 개인별 과제보다는 자신이 주체가 된 팀 과제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리 좋은 과제가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입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11월 22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11월 학평')가 시행된다. 전국 시도에서 모두 응시하는 시험으로, 재학생 간 1년 동안 학습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12월 : 2학기 기말고사 총력전

12월 중반이면 학기말 고사가 시행된다. 가용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기말고사 대비에 전념해야 한다. 성적이 오르면 자신감이 상승해 겨울방학 때 학업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겨울방학 때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 쉽다.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 향상 정도도 반영하므로 이전까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라도 기말고사를 잘 본다면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말고사 전 4~5주부터 준비에 매진해보자.

## 고교 신입생을 위한 '고교 신입생 준비 백서'

새 학년 새 학기 시작이 다가온다.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학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 전쟁'에 발을 들이는 예비 고교생들의 각오는 남다른 터. 고교 입학 앞둔 고교복을 맞추거나 참고서와 문제집을 사는 등 한창 분주한 2월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지금의 선부른 준비가 3월에는 막상 무용지물이 될지 모른다. 한창 고교 입학 준비에 바쁜 예비 고교생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고교 신입생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봤다.

### ○ 잊지 말자, 중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

고교 신입생들이 2월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중학교 교과과정을 '복습'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공부해야 할 학습량이 급증하고, 공부해야 할 내용도 확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예방주사격으로 앞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려고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해 배우게 될 내용은 모두 중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습 이전에 '복습'이 더 중요한 것. 특히 중학교에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개념과 지식을 단순히 외워서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각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개념이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알아둬야 하는 것인지 등을 꼼꼼히 파악하며 다시 한 번 복습하도록 하자.

### ○ 새 학년마다 반복되는 '문제집 쇼핑'은 그만!

중학교 과정을 복습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맞춰 문제집을 미리 '몽땅' 사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학생들은 새 문제집을 사면서 새롭게 학습 각오를 다지는 경우가 많다. 뽀뽀한 새 문제집을 펼쳐 보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지'란 생각이 자연스럽게 샘솟기도 하는 것이 사실. 이 때문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앞두고 마치 학용품을 사듯 '문제집 쇼핑'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 고등학교의 일과는 중학교의 일과와 사뭇 다르다. 공부해야 할 학습량도 많지만 공부 외에도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 고등학교는 초·중·고 가운데 시간이 가장 부족한 시기. 이런 상황에서 여러 권의 문제집을 미리 사는 것은 자칫 낭비가 될 수 있다. 학기 초 수업을 들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심해서 문제집을 사는 것이 좋다.

더불어 무리하게 학습계획을 세우는 일도 피해야 한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권의 문제집을 펼쳐놓고 뽀뽀하게 학습 계획을 세워두었다간 제 풀에 지치기 쉽다. 특히 공통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는 고교는 학교마다, 과목마다 진도를 나가는 속도가 다르고, 지필고사의 출제 경향도 각기 다르기 마련.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며 과목별 담당 교사의 특징 등을 파악해 이에 맞춰 학습 계

획을 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대학으로 가는 '빅 픽처(Big Picture)' 를 그려라  
현재 대입은 수시 비중이 크고, 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활동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신이 고교 3년간 한 활동을 하나의 '스토리' 로 엮을 수 있어야 하는 것.

학생부종합전형은 각각의 학년을 따로따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고, 3년간의 고교 생활 전체를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해하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수많은 동아리 중 적당한 하나를 골라 했던 학생과 자신이 목표로 한 계획의 가장 첫 단계로 특정 동아리를 선택해 한 학생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교 신입생이라면 '학습 계획' 을 세우는 데 치중하기보다 앞으로 3년간의 '활동 로드맵' 을 짜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남들과 다르게 치밀하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워가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진학할 것이며 이를 위해 1학년 때는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이를 발판 삼아 2, 3학년 때는 어떤 활동을 이어갈 것인가' 를 고민해보자.

▶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 2017학년도 학사일정 계획

월	일	화	수	목	금	토	수업일수
3월	1	2	3	4			22/22
4월	1	2	3	4	5	6	20/42
5월	1	2	3	4	5	6	20/62
6월	1	2	3	4	5	6	21/83
7월	1	2	3	4	5	6	15/98
8월	1	2	3	4	5	6	18/18
9월	1	2	3	4	5	6	21/39
10월	1	2	3	4	5	6	16/55
11월	1	2	3	4	5	6	20/75
12월	1	2	3	4	5	6	20/95
1월	1	2	3	4	5	6	0/95
2월	1	2	3	4	5	6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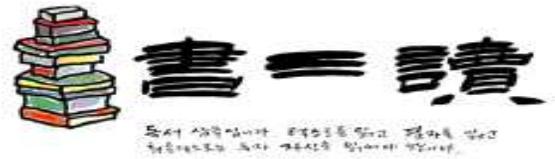


#### 2018. 입시 일정

2017년	2018년
8월 (수)	31 (수)
9월 (월)	11 (월)
10월 (수)	15 (수)
11월 (목)	16 (목)
12월 (수)	6 (수)
1월 (목)	13 (목)
2월 (수)	15 (수)
3월 (목)	21 (목)
4월 (수)	27 (수)
5월 (목)	28 (목)

#### 2019. 입시 일정

2018년	2019년
8월 (목)	31 (목)
9월 (월)	10 (월)
10월 (수)	14 (수)
11월 (목)	15 (목)
12월 (수)	5 (수)
1월 (목)	12 (목)
2월 (수)	14 (수)
3월 (목)	17 (목)
4월 (수)	19 (수)
5월 (목)	26 (목)
6월 (수)	27 (수)



책은 반드시 세번 읽어야 합니다.  
먼저 텍스트를 읽고  
다음으로 그 필자를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읽고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필자는 당대의 사회역사적 토대에  
발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하는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필자의 죽음과 독자적 탄생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탈주 행진입니다.

진정한 독서는 삼독입니다.

### 고3 학부모 시기별 활동(예시)

시기	학부모 활동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 분위기, 교과수업 적응 여부 등에 관심</li> <li>• 일정표 확인 : 연간학사일정표, 연간입사일정표, 연간모의고사일정표, 주간일정표</li> <li>• 신학년 담당교사와 상담 : 자녀소개(성격, 행동, 정서, 사회성, 리더십, 건강, 생활태도, 학습), 진로특성(특기), 흥미, 진로희망, 진로탐색활동), 자녀상, 자녀양육과정, 기타(경제지원요청, 가족관계), 학부모연락처 등→소통의 장 마련, 학급시간표, 담당시간표, 임원학부모연락처, 학급운영 지원방안, 위급상황상담, 개인상담 신청</li> <li>• 주간 학습 점검 확인 및 격려 : 기상시간, 새벽공부, 등교시간, 아침자습, 오전수업, 점심자습, 오후수업, 일과 후 학습, 취침시간, 자기평가, 주간목표</li> <li>• 학생부 자료 제출 및 기재 사항 확인 : 봉사활동확인서, 현혈증(사본), 자격증/인증(사본), 독서기록</li> <li>• 3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 확인 및 격려[3/9(목)]</li> <li>• 3월 모의고사 성적표 확인 : 2학년 성적과 비교 변화 검토, 정시지원 수준 파악, 4월 모의고사 목표 설정</li> <li>• 중간고사 준비 계획 수립</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모의고사 격려 및 가채점 결과 확인[4/12(수)]</li> <li>• 4월 모의고사 성적표 확인 : 교과 성적, 비교과, 모의성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개인별 지원 수시 전형 파악</li> <li>• 6월 모의수능 대비 목표 설정, 수학 대비, 탐구과목, 제2외/한문 과목 선택</li> <li>• 중간고사 대비 : 기출문제 풀이, 수행평가 관리, 주력과목 관리, 건강관리,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시 교과별 성적 향상에 따른 선택과 집중 학습 검토</li> <li>• 진로·진학 탐색 : 희망직업, 희망학과, 희망대학 결정→수시모집 요강 확인</li> <li>• 논술 준비·학생부종합전형 등 맞춤형 준비, 최저학력기준을 고려한 목표수정 및 준비</li> <li>• 주간 학습 점검 확인 및 격려 : 기상시간, 새벽공부, 등교시간, 아침자습, 오전수업, 점심자습, 오후수업, 일과 후 학습, 취침시간, 자기평가, 주간목표</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고사 성적표 확인과 예상 등급 분석 : 기말고사 대비방안 수립</li> <li>(1) 학생부종합전형 희망 시 전공적합성과 관련하여 성적의 추이 확인</li> <li>(2) 비교과활동과 성적향상 정도의 비교 및 목표 확인과 수정</li> <li>• 수시지원계획 공유</li> <li>(1) 지원방향 설정 : 대학교/전년대, 서울·수도권/지방, 전공/대학, 재수 가/불가에 대한 진솔한 소통의 장 마련</li> <li>(2) 희망대학, 희망학과, 전형유형 결정→지원 자격, 전형요소, 최저학력기준, 제출서류 확인</li> <li>(3) 모집요강 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 : 대학입학홈페이지, 대학 입학처, 대교협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 전북진로진학정보센터</li> <li>(4) 지원준비 : 지원 서류(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기록 정리, 기타 증빙자료), 대학별고사(기출문제, 모의문제, 예상문제)</li> <li>• 학부모 진학설명회 및 담당상담 : 전년도 수시 합격현황, 수시지원 적정범위, 수시지원 전략 수립</li> <li>• 비교과 영역 관리 :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기록, 자격증/인증취득</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모의수능시험[6/1(목)]</li> <li>• 가채점 결과 확인과 성적의 변화 분석</li> <li>(1) 응시인원과 등급점수 기준 확인,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등 변화 확인</li> <li>(2) 오답 정리와 2018학년도 수능 출제 예상 유형 점검</li> <li>• 6월 모의수능 성적표 확인 : 정시 지원 수준 파악, 수시 지원 범위 조정</li> <li>(1) 학급담임교사와 지원가능대학 상담 및 수시 지원 전략 수립</li> <li>(2) 재수생 포함 응시 인원의 변화와 과목별 점수의 변화 분석</li> <li>(3) 수시 지원 대학 수준 조정</li> <li>(4) 문항별 결과 분석과 취약분야 집중 보완 계획 수립</li> <li>(5) 7월 모의고사 목표 설정, 탐구과목 마무리 점검</li> <li>• 기말고사 대비 : 기출문제 풀이, 수행평가 관리, 주력과목 관리, 건강관리</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말고사 격려 및 1학기성적표 확인 : 희망 대학별 수시 학생부 성적 산출</li> <li>(1) 지원전형에 따른 성적 기준 분석</li> <li>(2) 1,2,3(1학기) 학년별 성적 변화 추이 확인 및 강약점 종합 분석</li> <li>• 7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 확인 및 격려[7/12(수)], 오답 정리 및 취약 부분 보완 지도</li> <li>• 전북교육청 수시대비 학부모 진학설명회 참석</li> <li>(1) 지원 전략 정리 : 수시지원 6회 지원 계획, 유리한 전형 찾기</li> <li>(2) 2018학년도 수시 지원의 특징 및 경향 파악</li> <li>• 7월 모의고사 성적표 확인 : 정시지원 수준 파악, 수시지원범위 결정</li> <li>• 9월 모의수능 목표 설정 : 목표 대학에 따른 목표 설정, 탐구과목, 제2외/한문 과목 확정</li> <li>•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여부 결정 및 서류준비 : 자기소개서, 활동자료, 면접 준비</li> <li>• 수시 모의 지원 계획 : 지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3년간 경쟁률, 전형유형, 지원자격, 전형단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교과/비교과)반영방법, 최저학력기준, 제출서류, 접수마감일자, 대학별고사 종류 및 시험일자, 대학한상점수, 정시기준 배치점수, 전년도 합격선</li> <li>• 학생부 자료 제출 및 중간 점검 : 출결,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li> <li>• 방학계획서 확인 및 격려 : 수능 응시 영역 및 과목선택, 수시 지원 대비 방안, 정시 지원 대비 방안, 9월 모의수능 대비방안, 학생부 비교과 대비방안, 자기주도 학습방안(기상시간, 취침시간, 학습장소, 취약영역 학습전략)</li> <li>• 진로탐색 : 희망직업, 희망학과, 희망대학 결정→모집요강, 기출문제 확인</li> <li>• 지원 대학탐방 : 건학이념, 모집단위 적합성, 학과정보, 대학정보, 합격전략, 탐방소감, 동문선배와의 멘토링, 진로에 미친 영향</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학상담 : 담임 상담, 전북교육청 수시상담[9.1(금)-9.8(금)]</li> <li>(1) 수시 지원 전략 타당성 점검</li> <li>(2) 지원에 따른 보완사항 확인</li> <li>• 개학대비 : 정시 지원 시까지 일정 확인 및 계획 점검, 건강관리</li> <li>• 대학별고사대비 : 기출문제, 모의문제, 예상문제, 면접대비</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모의수능대비 : 응시 영역, 선택과목 확정, 목표 설정</li> <li>• 학생부 자료 제출 및 최종확인 : 출결,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자격증/인증, 종합평가[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 2017. 8. 31.(수)]</li> <li>•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점검 : 담임교사, 교과담임교사, 동아리담임교사 등 종합적 검토 및 보완(집중기간 설정하여 작성)</li> <li>• 수능원서 작성 : 응시영역, 탐구과목, 제2외/한문 과목 선택, 응시료 납부</li> <li>(1) 지원희망 대학 전형요소 사전 확인하여 선택에 반영</li> <li>(2) 탐구 과목 수, 제2외국어 선택 여부 결정</li> <li>(3) 수능응시원서 작성하여 제출 마감이후 변경 불가에 유의</li> <li>• 2학기 중간/기말고사 대비 : 정시 지원 철저 대비</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모의수능시험 격려 및 가채점 결과 확인[9/6(수)] : 수시 지원 범위 확정</li> <li>• 9월 모의고사 성적표 확인 : 정시 지원 수준 파악, 주력 영역 확정, 수능 응시 전략</li> <li>• 진학상담 : 담당상담(수시 6회 지원, 지원 전략, 지원 서류)</li> <li>• 수시원서접수[9.11(월)-9.15(금)] : 접수사이트 회원가입, 접수사항기재 및 확인, 전형료결제</li> <li>(1) 수시 지원 계획 : 지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3년간 경쟁률, 전형유형, 지원자격, 전형단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교과/비교과)반영방법, 최저학력기준, 제출서류, 접수마감일자 및 시간, 대학별고사 종류 및 시험일자, 대학한상점수, 배치점수, 전년도 합격선</li> <li>(2) 지원 서류 준비 : 자기소개서, 추천서, 증빙자료 등</li> <li>• 대학별고사 응시 : 기출문제, 모의문제, 예상문제, 응시 유의사항 준수, 대중교통이용, 시계, 필기구, 지우개, 수정테이프, 휴지, 음료수, 비상약품</li> <li>• 10월 모의고사 대비 : 과목별 등급·백분위 목표 설정</li> <li>• 2학기 중간/기말고사 성적표 확인 및 격려</li> <li>• 주간 자율학습 점검 확인 및 격려</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모의고사 격려 및 가채점 결과 확인[10.17(화)]</li> <li>• 10월 모의고사 성적표 확인 : 정시 지원 수준 파악, 수시 지원 범위 결정</li> <li>• 수능대비</li> <li>(1) 건강관리(체력관리, 독감주의, 음식주의), 심리적 안정(마인드컨트롤)</li> <li>(2) 실천연습 : 취침시간, 기상시간, 아침식사, 등교시간, 시험시간에 맞추어 모의고사 문제지 풀이, 점심식사(식단을 구성하여 먹어보고 수정·보완), 주력 영역에 집중</li> <li>• 대학별고사 응시 : 기출문제, 모의문제, 예상문제, 응시유의사항 준수, 대중교통이용, 시계, 필기구, 지우개, 휴지, 음료수, 비상약품</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응시 격려 및 가채점 결과 확인[11.16(목)] : 대학별고사 응시여부 결정</li> <li>• 수능 응시 유의사항 확인</li> <li>(1) 준비물 체크리스트 : 수험표, 신분증, 시계, 필기구, 수정테이프, 휴지, 방석, 담요, 목장, 신발, 가방, 학습자료(오답노트, 요약 페이지), 비상약품</li> <li>(2) 반입금지물품, 휴대금지물품 확인, 휴대전화 소지 시 부정행위 처리</li> <li>(3) 수험생 유의사항 확인 및 준수, 수능고사 응시요령 및 시험전략 수립</li> <li>(4) 시험장 예비소집일 방문 : 소요시간, 시험장 위치 확인</li> <li>• 대학별고사 응시 : 기출문제, 모의문제, 예상문제, 응시유의사항 준수, 대중교통이용, 시계, 필기구, 지우개, 휴지, 음료수, 비상약품</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성적표 확인[12.7(수)] : 정시 지원 계획 수립, 지원 대학별 한상점수 산출</li> <li>• 전북교육청 정시대비 학부모 진학설명회[12/16(토)]</li> <li>• 대학별 정시 학생부성적 산출</li> <li>• 정시 학생부 자료 제출에 따른 최종 확인 : 정시 학생부작성기준일 : 2017.11.30.(목)</li> <li>• 수시합격자발표마감[12.15(금)] 확인 및 추가합격자 확인</li> <li>(1) 수시등록 : 12.18(월)-21(목)(4일) : 이중등록 금지</li> <li>(2)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마감 : 12.28(목)까지 등록 : 추합 통보방법 사전 확인</li> <li>• 정시 지원[2017.12.30.(토)-2018.1.2.(화) 3일 이상] : 수능 성적, 교과성적, 수능성적분석표(영역조합별 점수), 지원가능대학(기군, 나군, 다군, 산입대, 전년대, 특수목적대)→지원가능대학 모집요강 조사 : 지원대학, 모집단위/모집인원, 3년간 경쟁률, 접수 마감일자 및 시간, 대학별고사 종류 및 고사 일자, 합격자발표일자(1단계 발표일자, 최종 발표일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비율, 수능 반영점수 지표, 영어성적 반영방법, 탐구지정 및 가산점, 제2외/한문 탐구 반영여부 및 가산점, 대학별고사 반영비율, 비교과, 입시기관별 배치점수와 점수자, 대학한상점수(수능, 학생부), 유의사항, 제출서류</li> <li>• 진학상담 : 담임상담, 전북교육청 정시상담[12.18(월)-29(금)]</li> <li>• 정시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확인 : 접수사항 기재 및 확인, 전형료결제</li> <li>(1) 수시모집에서 최종합격(최초합격 및 추가합격 포함)한 경우→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 불가</li> <li>(2)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합격자는 지원 가능</li> <li>(3) 접수사이트 회원가입→인터넷 원서접수는 회원과 원서 접수자가 동일해야 함, 따라서 지원자 본인의 ID로 로그인 한 후 접수(패스워드 기억하지 못하여 접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li> <li>(4) 접수마감시간 확인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li> <li>(5) 결제 후 원서 내용 수정 불가이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 필요</li> <li>(6) 기타 제출 서류 기한 내에 제출 또는 송부 확인</li> <li>• 수시합격자 : 대학생활 대비(어학공부, 컴퓨터 활용능력, 글쓰기훈련, 전공탐색)</li> <li>• 방학계획 : 대학별고사대비, 고교졸업대비, 대학입학대비, 가족친목도모, 진로탐색</li> </ul>
2018년 1월 ~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 전형 응시</li> <li>(1) 정시 전형 기간 : 기군[1.3(수)-1.11(목)(9일)], 나군[1.12(금)-1.20(토)(9일)], 다군[1.21(일)-1.29(일)(9일)]</li> <li>(2) 기출문제, 모의문제, 예상문제, 응시유의사항 준수, 대중교통이용, 시계, 필기구, 지우개, 휴지, 음료수, 비상약품</li> <li>• 합격자 발표 : 1.30(화)</li> <li>•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마감 : 2.13(화)</li> <li>• 정시총원마감[2.14(수)까지]</li> <li>• 추가모집[2.18(일)-2.25(일)], 합격자 발표[2.25(일)], 등록기간[2.26(월)까지] : 일정한</li> </ul>